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October 2025 Issue | Vol. 73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개척자 인센티브에 관심 집중 —page 1
- 필리핀 수출업체들의 시장, 점점 좁아진다 — page 2-4
- EU 무역협정 시급... ECCP, 2027년 수출 위기 경고 — page 4-5
- 9월 국제수지 흑자, 8,200만 달러로 감소 — page 6-7
- DBM, 정부 입찰 규정 강화...소유구조 공개 의무화 — page 7-8
- 이제 운전자들은 루손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하나의 RF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age 8-9

UPCOMING EVENT

- [Nov 24, 2025] 2025 KCCP 크리스마스 파티 — page 9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개척자 인센티브에 관심 집중

October 19, 2025 | Sheldeen Joy Talavera | BusinessWorld

에너지부(DoE)는 경쟁입찰제도(CSP) 면제 및 현물 시장에서의 우선 송전권 부여 등을 포함한 폐기물 에너지화(WTE, Waste-to-Energy) 선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부가 공개한 시행세칙(초안)에 따르면, 선도적인 WTE 사업은 설비 용량과 관계없이 CSP 절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CSP 정책은 배전사업자들이 전력을 최소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투명하고 경쟁적인 입찰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또한 선도적인 폐기물 에너지화(WTE) 사업은 도매전력시장(WESM, 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에서 우선 송전(priority dispatch)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WESM은 전력 배전회사가 장기 전력공급계약으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WTE 개발사업자는 두 가지 인센티브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으로, 해당 부문에 특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른 하나는 **CREATE MORE 법(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to Maximize Opportunities for Reinvigorating the Economy Act)**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유연한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그린에너지 경매제도(Green Energy Auction Program)를 통해 공급 계약(off-take arrangement)을 체결한 선도 WTE 사업이 충분한 원료(feedstock)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도시(HUCs),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정부 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에너지규제위원회(ERC)는 폐기물 에너지화(WTE)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요금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한편, 전력망 운영자 및 송전망 제공업체는 WTE 개발업체와 함께 계획, 건설, 계통 연계 및 운영 통합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에너지부(DoE)는 “전력 생산 믹스에 WTE를 통합하는 것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고형폐기물 발생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밝혔다.

WTE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열, 전력 또는 연료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선도 WTE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2027년 이전에 건설 및 설치되어야 한다.

이달 초, 에너지부는 메트로 마닐라와 대도시(HUCs) 내에서 폐기물을 공급원(feedstock)으로 활용하는 WTE 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 1월에 특별 경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2026년 2분기에는 바이오매스 및 WTE 기술을 대상으로 한 후속 경매 라운드도 진행될 예정이다.

에너지부는 WTE 사업 개발을 고형폐기물 관리, 홍수 완화, 그리고 ‘청정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으로 보고 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10/19/706546/pioneer-incentives-eyed-for-waste-to-energy-projects/>

필리핀 수출업체들의 시장, 점점 좁아진다

October 19,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필리핀의 글로벌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는 부족한 예산, 내수시장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등 보호무역 정책에서 비롯된 불확실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 6,000개 업체를 집계했는데, 두 달 전에는 약 4,000개 수준이었습니다. 해마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수출업협회(Philexport) 마. 플로르텔리사 C. 레옹(Ma. Flordeliza C. Leong) 부회장은 최근 열린 필리핀통합항만이용자연합(United Portusers Confederation of the Philippines Inc.) 제3차 파트너스 포럼에서 *비즈니스미러*(BusinessMirror)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또 “예를 들어 팬데믹 기간 동안 세부(Cebu)에서 문을 닫은 업체가 많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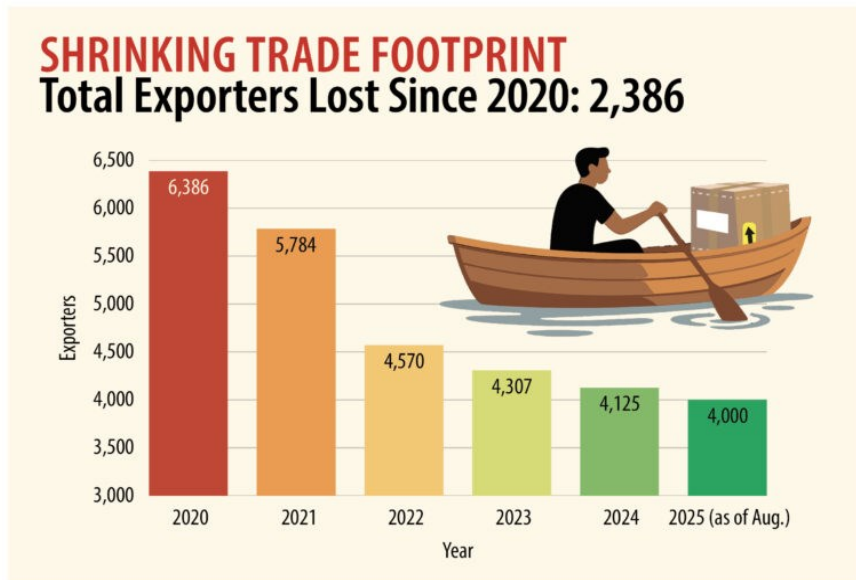
*비즈니스미러*가 무역산업부(DTI) 수출마케팅국(EMB) 비앙카 펠 R. 시키테(Bianca Pearl R. Sykimte) 국장으로부터 입수하고 필리핀통계청(PSA)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불과 5년 만에 2,261개의 수출업체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팬데믹 초기 6,386개였던 상품 수출업체 수는 2021년 5,784개로 줄어들어 602개 감소했다.

이후 2022년에는 1,214개 업체가 더 줄었고, 2023년에도 263개 업체가 감소하면서 연말에는 글로벌 무역에 참여한 업체가 4,307개에 불과했다.

2024년에도 182개 업체가 더 사라지며 수출업체 수는 4,125개로 감소했다.

2025년 8월 기준, 레옹 부회장은 *비즈니스미러*에 “현재 수출업체 수는 약 4,000개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관세와 임금 부담에 직격탄

레옹 부회장은 관세와 임금 상승이 일부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중단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중앙루손(Central Luzon)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처럼, 관세와 임금이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수출업체들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관세 같은 비용이 바로 부담으로 작용해요,”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산업부(DTI) 수출마케팅국(EMB)의 비앙카 펠 R. 시키테 국장은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필리핀 수출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키테 국장은 “일부 기업들은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우선시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직접 수출 대신 수출대행업체(컨솔리테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러한 선택이 준수 절차나 마케팅 측면에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치열한 경쟁 환경에 대해 레옹 부회장은 수출 전략의 핵심은 ‘바이어와의 관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지금은 아주 양자적(bilateral) 관계입니다. 이제는 일반화할 수 없어요.

만약 바이어가 비용 절감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바로 수출업체들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입니다”라고 말했다. [Cont. page 3]

필리핀 수출업체들의 시장, 점점 좁아진다

[Cont. from page 2]

레옹 부회장은 다시 한 번 필리핀 수출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자금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업체를 지원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 “결국 정부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환경이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출항별 필리핀 수출업체 동향

한편, 무역산업부(DTI) 수출마케팅국(EMB)은 필리핀 주요 항만별 수출업체의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비즈니스미러(BusinessMirror)가 정부의 수출마케팅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여러 항만에서 총 2,171개의 수출업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당시 필리핀에는 총 9,331개의 수출업체가 있었다.

이 중 3,476개 업체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을 통해, 2,371개가 마닐라국제컨테이너항만(Manila International Container Port)을 통해, 713개가 클락 공군기지(Clark Air Base), 504개가 세부시(Cebu City), 그리고 471개가 세부국제공항(Cebu International Airport)을 통해 상품을 선적했다.

이는 상위 5개 주요 수출항에 해당한다.

DTI-EMB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수출업체가 1,517개 줄어들며 7,814개로 감소했다.

이후 2023년에도 478개 업체가 수출을 중단, 연말 기준 7,336개 업체만이 해외 무역에 참여했다.

2024년에는 176개 업체가 더 줄어들어, 전체 수출업체 수는 7,160개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가장 활발한 무역 활동이 이루어진 5개 항만 중, NAIA에서 1,535개 업체가 사라졌으며, 세부국제공항에서는 386개 업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7,160개 수출업체 중 2,372개는 마닐라국제컨테이너항만, 1,941개는 NAIA, 701개는 클락 공군기지, 442개는 세부시, 386개는 세부국제공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미러가 2023년 12월에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시킵테 국장은 지난 5년간(2019~2023년) 약 4,000개의 수출업체가 수출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의 수출업체 수는 2018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수출업협회(Philexport) 세르히오 R. 오르티스-루이스 주니어(Sergio R. Ortiz-Luis Jr.)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들 중 상당수는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수출업체들이며, 공급 부족 때문에 수출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래된 수출업체들 중 많은 기업이 지정학적 요인, 사업 비용 상승, 그리고 악화된 경영 환경 때문에 사업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오르티스-루이스 회장은 “운송비, 해운비가 급등했고, 지방자치단체(LGU)의 통과수수료(pass-through fees) 때문에 많은 업체가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항만 이용 비용도 지나치게 높아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시킵테 국장 역시 필리핀의 수출품목 수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반면, 경쟁국들은 제품과 시장을 모두 다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ont. page 4]

필리핀 수출업체들의 시장, 점점 좁아진다

[Cont. from page 3]

레옹 부회장은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필리핀 수출개발계획(Philippine Export Development Plan)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지만, 소규모 수출업체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제품 개발, 시장조사, 마케팅, 관측 등에는 모두 자금이 필요하지만, 그들이 가진 돈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월 13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이미 마르코스(Imee Marcos) 상원의원은 크리스티나 A. 로케(Cristina A. Roque) 무역산업부장관을 비롯한 무역 당국자들에게, 워싱턴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필리핀 수출업체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취할 대책이 무엇이나고 질의했다.

마르코스 의원은 “시장 접근성(Market Access)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출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케 장관은 즉각적으로 답변하며, “우리는 국내 시장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매력적인 요인이며, 동시에 전 세계 DTI 해외무역사무소의 무역서비스단(Foreign Trade Service Corps)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르코스 의원은 “시장 개발은 중장기적 과제”라며, “문제는 지금 당장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나”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로케 장관은 “필리핀 수출업체들은 이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오랜 기간 수출을 해온 업체라면 다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오히려 수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의원은 무역산업부의 예산이 ‘예년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녀는 “작년과 지금의 예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만약 더 악화된다면,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출처: [BusinessMirror](https://businessmirror.com.ph/2025/10/19/world-is-shrinking-for-philippine-exporters/), 2025년 10월 13일자)

Image credits: [Skypixel](#) | [Dreamstime.com](#), [Ed Davad](#)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0/19/world-is-shrinking-for-philippine-exporters/>

EU 무역협정 시급... ECCP, 2027년 수출 위기 경고

October 19, 2025 | Dexter Barro II | Manila Bulletin

필리핀유럽상공회의소(ECCP)는 2027년 말까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부에 협상 가속화를 촉구했다.

ECCP는 2025년 옹호문서(Advocacy Papers)에서, 2027년 12월 필리핀이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GSP+) 혜택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라며, “FTA 체결의 긴급성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ECCP는 보고서에서 “적시에 협정을 체결할 경우, GSP+의 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무역 확대, 신규 투자 유치,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통합 강화를 통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협상이 지연될 경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손실과 함께, 필리핀이 가진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GSP+ 혜택을 받고 있는 단 8개국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총 6,274개 품목을 EU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Cont. page 5]

EU trade deal urgency: ECCP warns of 2027 export crisis

[Cont. from page 4]

ECCP는 보고서에서 “필리핀은 GSP+ 혜택을 받는 대가로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투명한 거버넌스 등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GSP+를 통해 약 25억7,000만 달러(미화) 규모의 필리핀 수출품이 무관세로 EU 시장에 진입했으며, 이는 필리핀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 제도의 활용률은 8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CCP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 참치, 파인애플이 가장 큰 수혜 품목이다.

보고서는 “새로운 무역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고, 수출업체들은 WTO 규정에 따른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CCP는 또, FTA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필리핀 수출업체들은 4억5천만 명에 달하는 EU 소비시장에 대한 우대 접근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 의류, 참치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도 관세 인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CCP는 “EU-필리핀 FTA 체결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다”며

“이는 단순히 임시 특혜제도에서 영구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넘어, 성장과 경쟁력,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CP는 GSP+ 제도는 일시적이며, 자격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준수가 필요하지만, FTA는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보다 영속적이고 상호적인 무역 체계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무역센터(ITC)의 연구를 인용하며, ECCP는 FTA 체결 시 필리핀이 EU 시장에서 약 83억 달러 규모의 잠재 수출 기회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ECCP는 FTA가 체결될 경우 EU의 필리핀 직접투자(FDI)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EU의 필리핀 내 누적 투자액은 2023년 기준 142억 유로로, 동남아 전체 EU 투자액의 약 4% 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보다 명확한 규정과 강화된 투자자 보호 조항을 담은 강력한 FTA는 유럽의 고품질 투자를 필리핀의 제조업, 인프라, 에너지, 서비스 부문으로 유입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내에서 유럽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양자 상공회의소인 ECCP는 유럽 기업들 역시 FTA 협상 가속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CCP가 2024년에 실시한 기업경기조사(Business Sentiment Survey)에 따르면, **응답한 약 200개 기업 중 85%가 FTA 발효가 자사 비즈니스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광범위한 지지는, 기업들이 FTA를 시장 접근성 확대, 무역 장벽 완화, 전반적 비즈니스 환경 개선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한편, 필리핀 주재 유럽연합 대사 마시모 산토로(Massimo Santoro)는 지난주 “현재 협상 속도로 볼 때, GSP+가 종료되는 2027년 말 이전에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U와 필리핀은 지난해 10월 협상을 재개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의 협상 라운드를 완료했으며, 네 번째 라운드는 이번 주 세부(Cebu)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과의 연대 차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CCP는 EU 입장에서 볼 때도, 필리핀과의 FTA 체결은 27개 회원국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EU는 1억 1,2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필리핀의 성장 잠재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기준, 필리핀의 대EU 수출액은 81억 달러, EU로부터의 수입액은 75억 달러로, 양측 간 총 교역 규모는 155억 달러에 달했다.

필리핀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코코넛 오일, 기계류, 통조림 참치가 이었다. 반면, 필리핀의 EU로부터의 주요 수입 품목은 항공기, 기계류, 의약품, 돼지고기, 유제품 등이었다.

Source: <https://mb.com.ph/2025/10/20/eu-trade-deal-urgency-eccp-warns-of-2027-export-crisis>

9월 국제수지 흑자, 8,200만 달러로 감소

October 21, 2025 | Katherine K. Chan | BusinessWorld



An employee holds US dollar bank notes at a money changer in Jakarta, Indonesia, April 9, 2025. — REUTERS/WILLY KURNIAWAN

필리핀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BoP) 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중앙은행이 월요일 보고했다.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예비 통계에 따르면, 9월 국제수지 흑자는 8,200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년 전 같은 달의 35억 2,600만 달러 흑자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또한 이는 8월의 3억 5,900만 달러 흑자보다 줄어든 것으로, 필리핀의 대외수지에서 두 달 연속 흑자가 유지된 가운데 흑자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BSP는 성명에서 “이번 국제수지 흑자는 BSP의 해외 투자 수익과 정부의 외화예금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BoP)는 한 나라가 해외와 주고받는 모든 경제 거래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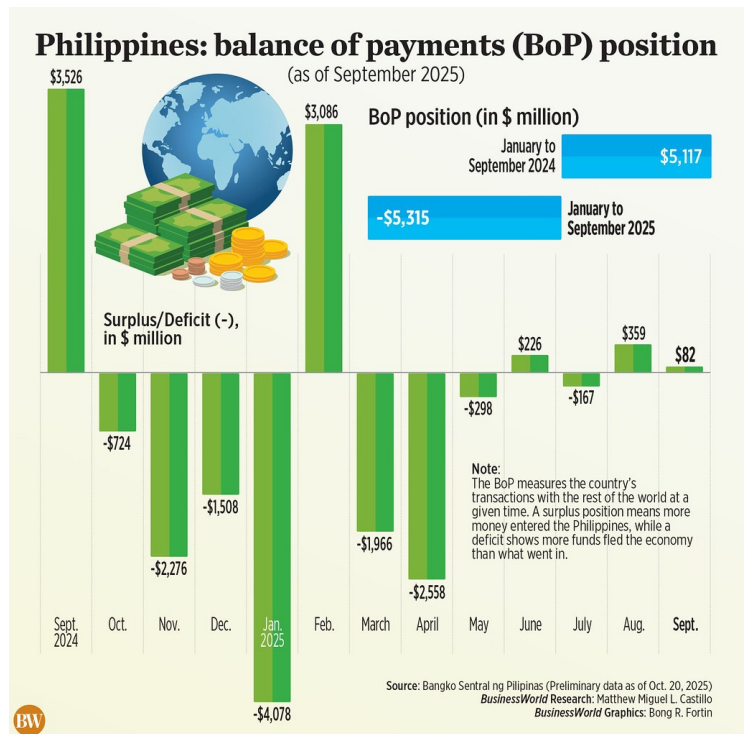
흑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적자는 국가가 해외로 지출한 금액이 유입액을 초과했음을 뜻한다.

지난달의 흑자는 9월 말 기준 필리핀의 누적 국제수지 적자를 53억 1,500만 달러로 축소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 동기 51억 1,700만 달러의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결과이기도 하다.

BSP는 “올해 누적 국제수지 적자는 주로 상품무역 적자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며, “다만 해외 필리핀 근로자들의 송금, 서비스 무역, 외국인 직접 및 포트폴리오 투자, 그리고 정부의 해외차입에 따른 순유입이 일부 상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역수지 적자(수출입 차)는 323억 8,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343억 3,000만 달러 적자보다 축소된 수준을 보였다.



필리핀의 상품 무역수지는 2015년 5월 6,495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10년 이상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시큐리티뱅크(Securities Bank Corp.)의 리서치부문 책임자이자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안젤로 비. 타닝코(Angelo B. Taningco)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9월 국제수지 흑자는 서비스무역에서의 순수입, 해외 필리핀 근로자 송금 유입, 순외국인 주식투자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요인들이 상품무역 적자와 외국인 채권투자 순유출을 상쇄하며, 3분기 전체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견인했다.”

BSP 자료에 따르면, 올해 7~9월 분기 국제수지는 2억 7,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전년 같은 기간의 36억 7,600만 달러 흑자보다는 크게 줄어든 규모였다.

타닝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분기에도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2025년 말 국제수지 적자가 약 45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BSP는 올해 전체 국제수지(BOP)가 69억 달러 적자,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으로 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M인베스트먼트(SM Investments Corp.)의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단 제이 로세스(Robert Dan J. Roces)는 바이버(Viber)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Cont. Page 7]

9월 국제수지 흑자, 8,200만 달러로 감소 [Cont. from page 6]

“국제수지 흑자 규모 축소는 일회성 외화 유입이 줄고 무역적자가 여전히 큰 상황을 반영하지만, 해외 송금의 안정적 흐름, 건조한 서비스 수출, 그리고 탄탄한 외환보유액 덕분에 필리핀의 대외수지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어 “세계 금리가 완화되고 역내 수요가 회복되면 투자자금 유입이 재개되어 유동성과 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은 국내 기반이 탄탄하고 성장 동력이 다변화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보유액(RESERVES)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은 9월 말 기준 국가의 국제수지(BOP) 흑자가 총외환보유액(GIR) 증가와 연동된 결과라고 밝혔다.

총외환보유액은 8월의 1,071억 달러에서 9월 말 1,091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BSP는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은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 수입과 본원소득 지급 기준 7.3개월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 기준으로 제시되는 3개월치의 최소 안전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할 때, 단기 외채의 약 3.8배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이 수입대금 결제나 외채 상환 등 국가의 외화 자금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력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의 총외환보유액은 외화 표시 증권, 외환, 금을 포함한 기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BSP는 이러한 자산을 대외 채무 이행뿐 아니라 페소화 안정과 글로벌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완충 장치(buffer)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SP는 2025년 말까지 외환보유액이 1,050억 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0/21/706813/bop-surplus-narrows-to-82-million-in-sept/>

DBM, 정부 입찰 규정 강화...소유구조 공개 의무화

October 21, 2025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Budget Secretary
Amenah Pangandaman

예산관리부(DBM)는 어제 성명을 통해, 지난해 제정된 ‘신정부조달법(New Government Procurement Act, NGPA, 공화국법 제12009호)’에 따라 정부 사업에서의 ‘바지입찰(dummy bidding)’ 관행이 더 이상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메나 팡간다만(Amenah Pangandaman) 예산관리부 장관은 특히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의 의무 공개 조항을 언급하며, 이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 실제로 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의 신원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팡간다만 장관은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정보 공개 조항은 2024년 7월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서명한 공화국법 제12009호(신정부조달법, NGPA) 제81조와 제82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질적 소유자 공개는 새로운 법의 핵심 조항으로, 공공조달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라며 “정부 조달 입찰에서의 부패와 담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팡간다만 장관은 또 “NGPA 아래에서는 ‘이름 바꾸기(palit-pangalan)’, ‘대표 바꾸기(palit-ulo)’, ‘바지회사(dummy company)’와 같은 과거의 부정 입찰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실질적 소유자 정보 공개 제도가 공공조달 과정의 청렴성, 공정경쟁, 완전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또한 공공조달 입찰자들 사이에 동일한 실질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정부조달정책위원회 기술지원사무국(GPPB-TSO)의 연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GPPB-TSO의 마리아 디오네시아 리베라-기예르모(Maria Dionesia Rivera-Guillermo) 국장 직무대행은 “2023년 TSO의 무작위 표본조사 결과, 180개 조달 기관 중 65.8%의 입찰자가 공통된 소유주를 가지고 있었으며, 71.6%는 정부 관계자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ont. page 8]

DBM, 정부 입찰 규정 강화...소유구조 공개 의무화

[Cont. from page 7]

그는 이어 “실질적 소유자 공개 제도를 통해 공공계약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억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간다만 장관은 NGPA의 해당 조항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정보가 이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격 서류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예산관리부 산하 조달서비스국(PS-DBM)의 필리핀정부전자조달시스템(PhilGEPS)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모든 입찰자에게 의무화된 ‘PhilGEPS 플래티넘(Platinum) 등록’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요건은 2025년 2월 4일 광간다만 장관이 의장을 맡은 정부조달정책위원회(GPPB)가 승인한 NGPA 시행규칙(IRR) 제20.2.9.1(b)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달서비스국(PS-DBM) 필지엠스(PhilGEPS) 사무국의 헨마리츠 엔트레디초-카오영(Genmaries Entredicho-Caong) 국장은 “올해 기준 총 12,769개의 PhilGEPS 플래티넘 등록 기업 중 6,766개 기업만이 실질적 소유자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플래티넘 등록이 자동으로 일시 정지되며, 이는 입찰자가 제출해야 하는 유일한 자격 요건 서류이기 때문에, 실질적 소유자가 명시된 기업만이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실질 소유자는 발주기관이나 다른 입찰자와 이해충돌 관계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GPPB는 세계은행(World Bank) 및 오픈오너십(Open Ownership) 등과 협력하여 입찰자의 실질적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과 분석 도구 시제품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은 조달기관이 이상 징후(red flag)를 조기에 식별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광간다만 장관은

“이해충돌과 사기 방지 차원을 넘어, 입찰자·공급업체·계약자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조달 과정의 감시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국민이 정부 조달 감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NGPA는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강화된 국민 참여라는 원칙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열린정부파트너십(Philippin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POGP) 하에서 DBM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corporate/dbm-tightens-rules-vs-govt-bidding-via-ownership-reveal/](https://malaya.com.ph/business/corporate/dbm-tightens-rules-vs-govt-bidding-via-ownership-reveal/)

이제 운전자들은 루손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하나의 RF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ctober 21, 2025 | Jean Mangaluz - Philstar.com

마닐라, 필리핀 — 루손 지역의 고속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은 이제 여러 개의 무선 주파수 인식(RFID) 태그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정부의 ‘원 RFID, 올 톨웨이즈(One RFID, All Tollways)’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10월 21일(화요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서비스 제공업체 오토스weep(Autosweep), 이지트립(Easytrip)은 두 종류 중 어떤 RFID 태그라도 모든 톨게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출범시켰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라구나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행사를 주재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 미구엘 코퍼레이션(San Miguel Corp.)의 CEO 라몬 앙(Ramon Ang)과 **메트로 퍼시픽 인베스트먼트스 코퍼레이션(Metro Pacific Investments Corp.)*의 CEO 매니 팡길리난(Manny Pangilinan)도 함께했다.

앙의 회사는 남루손고속도로(SLEX)를, 팡길리난의 회사는 북루손고속도로(NLEX)를 소유·운영하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통합 시스템이 교통부(DOTr), 톨 요금 규제위원회(Toll Regulatory Board), 그리고 민간 운영업체들 간의 수년간의 협의 끝에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두 개의 태그에서 하나로.

통합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오토스weep(Autosweep) RFID가 스카이웨이(Skyway), 남루손고속도로(SLEX),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고속도로(NAIAX), STAR 톨웨이, MCX, 그리고 TPLEX에서 필요했다. [Cont. page 9]



(From left to right) Acting Transport Secretary Giovanni Lopez,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and Metro Pacific Investments Corporation CEO Manny Pangilinan and San Miguel Corporation CEO Ramon Ang at the launch of the “One RFID, All Tollways” system in Laguna on October 21, 2025.

RTV Malacañang / Facebook

이제 운전자들은 루손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하나의 RF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t. from page 8]

한편 이지트립(EasyTrip)은 북루손고속도로(NLEX), 수빅-클락-타를락 고속도로(SCTEX), 카비테 고속도로(CAVITEX), 그리고 카비테-라구나 고속도로(CALAX)에서 사용되었다.

통합 RFID 신청 방법

통합 시스템은 무료이며 선택 사항이다. 운전자들은 몇 가지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 오토스weep(Autosweep) 또는 이지트립(EasyTrip)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현장과 공식 소셜미디어 페이지에서도 등록 페이지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제공된다.
-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한다. 이미 두 개의 태그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태그를 제거한다. 가능하면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태그가 없는 경우, 제휴 서비스 센터에서 설치할 수 있다.
- 통합 RFID 사용을 시작한다. 계정과 태그가 연동되면 루손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선택된 RFID 서비스 센터와 톨게이트에서도 현장 등록이 가능하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0/21/2481470/motorists-can-now-use-one-rfid-all-luzon-expressways>

UPCOMING EVENT



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KCCP)는 **2025년 11월 24일 마카티 스포츠 클럽(Makati Sports Club)**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할 테이블 후원사(Table Sponsor) 또는 경품 후원사(Raffle Sponsor)를 모집합니다.

이번 연말 행사에는 **한국과 필리핀의 주요 기업 리더들이 함께 모여 성탄절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Ms. Chi / Ms. Sang
 Tel No. +632-8885-7342
 Mobile: 0917-801-5920 | 0915-888-7296 (both available in Viber & Kakaotalk)
 email info@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BDO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bdo.com.ph

We find ways®

BDO Unibank is regulated by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s://www.bsp.gov.ph>
For concerns, please visit any BDO branch near you or reach us thru any of the channels listed on our website: <https://www.bdo.com.ph/consumer-assistance>.
Deposits are insured by PDIC up to P500,000 per depositor. The BDO, BDO Unibank & other BDO-related trademarks are owned by BDO Unibank, Inc. All Rights Reserved.